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15:10)

2023년 2월 5일 공현후 5주일(연중5주일) · 가해 · 백석

제58-6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마태 5:13-2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그 본질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각각의 개인이 가진 특성을 없애고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다양성과 특징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의 모습이 밝게 빛나고 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독서로 읽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로는 신앙생활이 성숙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심오한 지혜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로가 전하는 그 지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둔 지혜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깨닫지 못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로가 말하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하느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기에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오늘 1독서로 읽은 이사야 예언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하느님 사랑의 징표로 드러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지만 자신만 빛을 가지려는 욕심에 뒷باك으로 덮어 놓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가 이루길 바라시는 모습을 성찰해 봅시다. 신앙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구균하 신부)

주일 성찬례 일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평일 성찬례 화·수·목·금 오전 6시 30분
어린이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청소년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서남철 아브라함



방역 지침 변경과 마스크 착용 안내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30일부로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그림 참조). 종교 시설은 자율적 착용 권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밀접한 실내 공간과 합창 등에 관해서는 <착용 적극 권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의 교우 여러분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지침 변경에 따른 권고 사항도 잘 따를 예정입니다. 다만, 새로운 확진자와 재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당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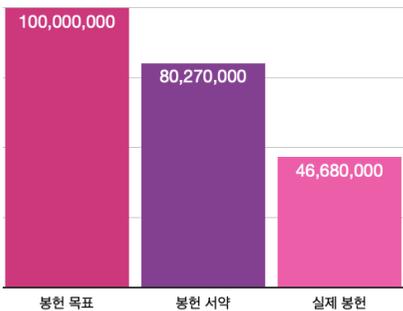


×	○	○	×	○	×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성당에서는 자율 착용, 성전에서는 착용, 영성체 때는 자율 착용, 성가대는 착용

- 성당 전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깁니다(카페와 회의 시설 기준).
- 성찬례에 참여할 때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밀접 실내와 합창 기준).
- 성가대는 비말 방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노약자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집전 성직자와 전례봉사자는 교우들과 거리가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체와 보혈을 나눌 때는 성직자와 봉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교우들은 마스크를 벗고 나와도 됩니다.

위 안내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교 특별 봉헌 현황

봉헌 목표액: 1억원 (2023년 12월까지)

봉헌 서약액: 80,270,000원

(1월 29일 현재, 서약자 68명)

봉헌 누적액: 46,680,000원 (1월 29일 현재)

❖ 섬기는 교우들 ❖

교회위원 구정에 번금숙 선병순 신한중 윤영옥 전병도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륜 유호애 추형두 이충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정희 이란희 이광재마리아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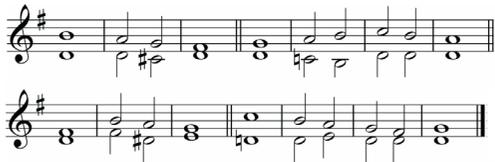
개회예식

- 입당성가(선다) ♪ 248장 다함께
- 정심기도 ✧ 244 집전자
- 죄의고백 ✧ 284 다함께
- 영광송 (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신실하신 하느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1 독서(읽는다) 이사 58:1-12 말은이
- 시편 시편 112편 다함께



- 1 알렐루야! 복되여라, 주님을 경외하-이며
 ○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사람,
- 2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이고
 ○ 정직한 후예의 축복을 이받-리라.
- 3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 4 그는 어질고 자비롭고 올바른 사-사람이다,
 ○ 어둠 속의 빛처럼 정직한 사-사람을 비-춘다.
- 5 주님을 믿-으므로 그 마음은 이-튼튼하여
 ○ 불행이 온다 해도 겁-내지 아니-한다.
- 6 그는 너그-러워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니 그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고
 ○ 사-사람들이 그 영광스-런 모습을 이-우리르리라.
- ◎ 영광이 | 성부 | 와 ○ 성 | 자와 | 성령 | 께
 처음과 같이 | 지금 | 도 ○ 그리고 영 | 원히, | 아 | 멘

- 2 독서(읽는다) 1고린 2:1-12 말은이
- 찬가 성가대 특송
- 복음환호송(B곡) ✧ 284 / ♪ 56 말은이
- 복음서(선다) 마태 5:13-20 말은이
- 설교(읽는다) 말은이
- 니케아신경(읽는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 평화의 인사(선다) ✧ 284 다함께
- 봉헌성가 ♪ 358장 / 유빌라테회 다함께
- 예물기도 ✧ 284 말은이
- 성찬기도 (4양식) ✧ 257
 거룩하시다 (C곡) ✧ 267 / ♪ 82 다함께
- 마침영광송 ✧ 269 / ♪ 64 다함께
-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 성체나눔 ✧ 269 다함께
- 하느님의 어린양 (C곡) ✧ 270 / ♪ 83 다함께
-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 166장 다함께
-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 축복기도(선다) ✧ 285 집전자
- 파송 ✧ 272 말은이
- 파송성가 ♪ 562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2월 5일)		다음 주일 성찬례 (2월 12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1독서	우영현	윤영옥	김태영	이정숙
2독서	서정민	김경아	서정민	신환중
대 도	이경희	전병도	신명식	김종희
십자가	윤용환	차기성/이종한	박해웅	이용해/윤영옥
다음 주일 2월 12일	전례독서 신명 30:15-20 시편 119:1-8 1고린 3:1-9 마태 5:21-37 성 가 입당 259장 봉헌 450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578장			
성 당 청 소	2월 11일 요한회 1조 신환중 이종한 한재업 김종현 차기영 고희		2월 18일 요한회 2조 서남철 윤선구 유권열 유인환 박영수 윤용환	